

2021년 12월호(제 204호)

소중한사람들

12월

마지막 잎새 같은 달력을 바라봅니다.
흐르는 물과 시간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새롭게 흘러가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흰 눈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얗게 덮듯이
나에게 다가 왔던 많은 것들...
기쁜 일보다 가슴 아픈 슬픔이 더 많았었지만
지나온 모든 것들은 나를 키워주는 고마운 추억이
있다고
조용히 덮어 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내가 감당하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은 없나?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 깊이 뒤돌아봅니다.

두 손을 오래 비벼
사랑하는 사람의 차가운 볼을 뽀뽀 주고
우리의 사랑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서로 마주보며 올려다본 하늘에서
합박눈이 펄펄 내립니다.

시/ 유정옥

발행인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10-7195-3045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소중한 엄마들

소중한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교회입니다. 노숙인, 암환자와 같은 가난한 사람, 혹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특화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봉사를 위해서 모여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소중한 사람들에 와서 사역한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 봉사자들을 위하여 시간을 쓴 것은 연초 심방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적 실력의 증진을 도모한 것 외에는 크게 나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24시간 대부분은 환우들, 그리고 주일에 보게 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별다른 목회적 교육 시스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 근처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11시 예배 후 제가 데려오는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당시 서울역 센터에 가지 못하고 청평에서 예배를 중계하며 2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졌을 때에 서울역 센터에 돌아가 보니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배가 어려워진 교회,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떠돌던 '영적 노숙인'(저와 면담했던 성도의 말)이 되어 서울역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역 교회는 더 부흥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영적 노숙인이 되어 영적인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영적 돌봄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소중한 사람들에서 오히려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봉사가 아닌 예배만이라도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 한쪽에 모았습니다. 그 전에는 노숙인들이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일반 성도들은 맨 뒤에 앉아 그 예배를 지켜보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도 예배의 주체이며 사랑 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생각에 구조상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심껏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3-7세 사이의 아이를 둔 엄마들의 소외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3세부터 7세 사이에 엄마들은 일, 가사, 양육 심지어 교회에서의 봉사까지 합하여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을 위하여 영적인 돌봄을 주는 프로그램이 교회 내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들의 아빠로써 3-7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은 엄마의 치마폭에만 붙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엄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습니다.

과거 부목사 시절 내내는 발달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더딘 아들을 여러 언어 치료 센터, 사회 치료 센터를 혼자 데리고 다니며 고생했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느라 거의 집에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내내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들이 돌이었던 때문입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가끔 외식하자고 바람도 쐬게 해주고 같이 공원도 시간을 내서 다녀봤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많이 힘들었을 아내를 아동 심리, 양육, 상담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을 이해하고 잘 교육하기 위해서라 생각했었지만, 결국 그 공부와 모임들이 아들 둘을 둔 엄마의 큰 도피처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힘든 육아로 위로받을 수 있는 힘겨움의 숨구멍과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공부하며 학위도 취득하였지만 놀랍게도 양육에 관한 책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두 책 모두 베스트

셀러에 올랐고, "아가야 우리 잘해보자"는 2020년 세종 도서 교양 서적으로 선정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며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정도였지만 이번에 이렇게 소중한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제일 먼저 떠 오른 책임자는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젊은 엄마들의 영적인 돌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 볼래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며 정말 필요한 영적인 양육 방식을 나눌 수 있고 엄마들 간의 뜨거운 기도가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거든. 그런데 12번 정도 만나는 세션 스타일로 했으면 하고 당신이 이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한번 엄마들을 위해 이 모임을 이끌어 줄생각있어요?"

아내는 신중한 타입인지라 바로 대답하지 않고 늘 기도하던 시간에 깊이 기도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는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임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줄만한 분은 역시 어머니 밖에 없으니 어머니에게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소중한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 중에도 육아에 지친 며느리나 딸들을 둔 분들이 있을 터이니 이 모임을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어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역 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같이 식사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모임 이름은 무엇을 할건가?"

"소중한 엄마들이요"

"에이, 소중한 아이들이겠지?"

"아니요, 주인공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을 위해서도 에너지도 발산하고 영적인 돌봄도 만들 거라는 계획을 들으시고 아이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이 모임은 엄마들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힘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제가 부목사 시절 많이 못 도와준 과거, 아내를 향한 나의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닐까 합니다.

2022년 3월부터(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혹시 주변에 육아와 영적인 건강함이 필요한 엄마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글 / 이성일 목사

모임 안내

소중한 엄마들 (Precious Moms)

- 대상 : 3-7세 사이 미취학 아동 엄마들과 아동들
- 엄마들의 육아에 대한 바른 방법론을 배움 (12주)
 - 엄마들 안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그 힘겨움을 같이 공유함
 -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
 - 아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영적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게 함.
 - 식사 제공

모임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5:30 - 7:30 (식사 포함)

장소 :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 2층

모임 참여를 위한 문의 : 010-7195-3045 (이성일 목사)

모임 시작은 2022년 3월 코로나상황에 맞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에 모임 참여를 위한 문의를 받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나 이성일 목사에게 참여 의사를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하시는 분들에게는 박선인 사모 저서 "아가야 우리 잘해보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참여 제한 인원은 5명입니다. (어머니들 수)



▲ 가을을 만끽하며.



▲ 건강트레킹



▲ 김정담그기



▲ 배추내리기



▲ 배추절이기



▲ 복음 전하기



▲ 서울역노숙인전도



▲ 성찬식



▲ 성탄트리 만들기



▲ 세례식을 마치고...



▲ 센터방역



▲ 소중한사람들



▲ 안개진 호수에서..



▲ 차한잔의 여유



▲ 청명호수가

입학원서

예전에는 입시철만 되면 마치 전쟁터 같았다. 여러 학교에 지원서를 써 가지고 다니면서 마감 시간이 압박하면 경쟁률이 약한 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접수창구 앞에서 넘어지고 발하고 난리가 났었다. 원서 접수하기 바로 전에 지원하는 과를 바꾸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자신에 대한 미래의 꿈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달랐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때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다. 예의 바르고 말이 없이 조용한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명문대인 S대 경영대를 졸업했고 전역과 동시에 대기업 3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 제의를 받은 상태였다. 그의 남다른 고민을 들으면 누구나 웬 즐거운 비명이나 할 정도였다. 그는 높은 연봉과 앞날의 출세가 보장된 대기업의 조건보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붙들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고민을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알았다. 혹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상대에게 볼수록 이야기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알려 주신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고넬료에게도 알려 주시므로써 두 사람의 확인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서게 한다.

나는 그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앞날의 진로에 대해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라고 권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집에서 그를 돕는 기도를 했다. 자정 즈음에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강대상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다. 평소에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동안 조용히 기도했다. 얼마나 흘렸을까?

나를 발견한 그가 나에게 달려왔다. 나의 손을 잡으며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사모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나 같이 죄 많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해주라고 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날 이후 그는 곧바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어서 아들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견잡을 수 없이 압박할 것이 뻔했다. 그는 교회 건물 위층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했고 식사는 그 청년과 교제중인 우리 교회 자매가 끼니마다 준비하여 교회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교회 모자실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가 영어나 철학, 논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텐데 성경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입시가이드도 사다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살이 예상 문제를 뽑아서 주었다. 논문은 주로 그 해에 이슈가 되는 것이 출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신학지남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숙지하라고 했다. 그가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생겼다. 그 해에 담임 목사인 남편이 러시아 하바롭스키에 선교를 가 있었다. 그래서 신학대학 은사 교수님이 담임목사 대행으로 우리교회에 와서 설교를 맡고 있었다. 교수님은 담임목사가 부재중이니 다른 교회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아 원서 접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인데 왜 다른 교회 이름으로 시험을 보게 하냐요?" "사모님! 그지 입학시험 보는 것 뿐인데 어느 교회 이름이면 어때요." "안돼요. 목사님 우리교회 청년이니까 우리교회 이름으로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 수석 합격할 것이거든요." "사모님! 그건 사모님의 바람이지요." 교수님은 나를 만류할 수 없음을 알았는지 "하나로 교회" 추천으로 신학대학원 입학원서를 접수하게 했다. 나는 그 청년이 좋은 조건의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을 때, 그의 앞길에 펼쳐질 어려운 고난을 생각해보았다. 분명 부모님은 입학금을 포함해서 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어쩌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가 세상 영광을 버렸으니 나의 영광을 누리라."는 확신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의 입학시험 전 "형제님! 복제인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하라. 또는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사이버 예배에 대해서... 논문을 한 번 써보세요." 그렇게 두 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입학시험을 치렀다.

합격자 발표 일에 우리교회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다. 합격자 발표가 수험 번호 순으로 벽에 붙어 있었다. 아! 합격자 명단 맨 앞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수석 합격자였다. 그의 이름 옆에 소속교회 "하나로 교회" 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처럼 소리 내어 울었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일싸안고 박수를 치며 기쁨을 나눴다. 그는 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사모님! 이번 입학시험 논문의제가 복제 인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하라."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입학금과 앞으로의 학비에 대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네. "나의 막내가 총신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때에 논문의제가 사이버 예배에 대해 성경적으로 논하라였다. 내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를 때 논문의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하라였다. 그런데 논문의제가 미리 유출되어 재시험을 치렀는데 낙태에 대해서였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입학을 돕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논문의제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게 하셨다. 그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입학 후 교제 중이던 우리 교회 자매와 결혼을 했다. 그녀의 가정은 가난했고 그 청년에 비해 학벌도 부족했지만 두 사람은 신실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는 또 한 차례 큰 잔치를 치렀는데 그들의 결혼식이었다. 청년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척,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가난한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우리 하나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유일한 하객이었고 동시에 혼주들이었다. 러시아 선교에서 돌아온 남편이 시아버지,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물은 내가 우리 남편에게 결혼 때 받은 것을 다시 새롭게 가공해서 그 부부에게 주었다. 그는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을 택하여 출발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 살리는 길을 가고 있는 그를 만날 때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얼굴이었다.

명예, 권력, 쾌락, 물질, 성공... 써어질 것들을 영원히 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나의 미래, 나의 진로가 될 수 있는 곳에 인생의 원서를 내자!

글 / 유정옥

2021년 11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천사헌금● 류승희(1,000,000)	이복순(500,000)	황보순(100,000)				
●추수감사 헌금● 강성림(50,000) 이미나(100,000) 최영자(50,000)	김지윤(50,000) 이상익,박선인,이희희,이태희(400,000) 최영희(50,000)	김형식(300,000) 이혁희(400,000) 하준규(50,000)	민안나(30,000) 이약선(40,000)	송은미(100,000) 이인순(28,000)	송현우(100,000) 정훈기,박요정(50,000)	윤주동(150,000) 조직상(20,000)
●십일조● 강성림(50,000) 이상일(300,000)	김상근(306,000) 이인순(360,000)	김형식(105,000) 이희숙(10,000)	민안나(130,000) 정훈기,박요정(300,000)	박용범(430,000) 조범호(210,000)	양은옥(330,000) 최영자(100,000)	오윤재(60,000) 추연국(100,000)
●감사헌금● 갈경숙(30,000) 김성미(50,000) 박광수(100,000) 송현우(100,000) 이상일(200,000) 이희숙(50,000) 하준규(500,000) 권은미(500,000) 김현숙(1,000,000) 박아경(30,000) 유선정(100,000) 이상길(10,000) 임교환(650,000) 한은숙(200,000)	강성림(80,000) 김순정(210,000) 박선인(204,435) 신현숙(100,000) 이순조(50,000) 임시은(50,000) 홍인옥(120,000) 김광숙(50,000) 김영준(20,000) 박은진(53,000) 유성진(300,000) 이슬기(200,000) 장영숙(20,000) 한정식(200,000)	강유정(55,000) 김영민(200,000) 박수정(50,000) 오윤호스피스(100,000) 이약선(180,000) 정훈기,박요정(90,000) 고혜옥(100,000) 김희희(100,000) 김혜림,김윤재(100,000) 백현미(20,000) 육춘기(200,000) 이원복(10,000) 장영훈(100,000) 하재건(200,000)	권분희(250,000) 김형식(500,000) 변영미(50,000) 유정옥(300,000) 이영광(10,000) 조직상(20,000) 공은영(30,000) 김영관(100,000) 김혜은(20,000) 성정음(20,000) 윤아영(783,000) 이원영(1,000,000) 정동애(30,000) 한성환(30,000)	권외재(50,000) 나상윤(300,000) 소한규(50,000) 윤지혜(10,000) 이옥경(50,000) 최봉관(600,000) 구민정(20,000) 권경희(100,000) 김영숙(20,000) 노은순님가족(365,000) 소한태(10,000) 이금재(100,000) 이진순(40,000) 조정덕(100,000) 황옥남(30,000)	김상근(450,000) 무영(1,000,000) 송기승(30,000) 이기열(300,000) 이인순(100,000) 최영자(90,000) 구민정(20,000) 김영미(30,000) 민한정(660,000) 송영옥(50,000) 이든구(1,000,000) 이한나(50,000) 최영희(10,000)	김선애(50,000) 민안나(20,000) 송은미(200,000) 이미라(250,000) 이지아(120,000) 최영희(150,000) 권외재(1,000,000) 김점숙(50,000) 박란희(5,000) 신현규,이희숙(200,000) 이명승(50,000) 임경주(300,000) 최은선(100,000)
●기관후원헌금●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100,000)	서울서교회(100,000)	오윤호스피스(50,000)		
●CMS헌금● 강은숙(20,000) 김현정(100,000) 박재은(5,000) 이성림(100,000) 조남남(20,000) 한종일(20,000)	권태준(10,000) 나지용(15,000) 백소연(20,000) 이혜경(50,000) 진성관(50,000) 황지훈(100,000)	김규욱(30,000) 남혜연(10,000) 소화남(30,000) 장승아(10,000) 최성(20,000) Ahn Anna(100,000)	김분기(50,000) 민한정(10,000) 윤인초(10,000) 진순영(20,000) 최은숙(10,000)	김성재(20,000) 박경미(50,000) 윤화숙(30,000) 정예은(5,000) 최은주(10,000)	김영선(30,000) 박완준(50,000) 이경희(10,000) 이미진(10,000) 정은경(10,000) 하정민(10,000)	김진영(10,000) 박완준(50,000) 이미진(10,000) 정은경(10,000) 하정민(10,000)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십일조	2,791,00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514,252
감사헌금	19,435,435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466,575
추수감사헌금	1,600,000	식자재구입비	16,860,357
천사헌금	1,875,000	전기요금	2,757,310
CMS헌금	1,668,000	가스요금	972,100
		화재보험료	1,200,000
		KT통신비	7,700
		CMS사용료	66,000
		비품구입비(소모품)	940,700
		안전점검비	539,000
		우편발송비	44,640
		전도폭발 교우교제비	72,000
		급여인건비	11,729,250
		사회보장보험비	1,560,670
금월 수입 합계	27,369,435	지출 총액	38,730,554
전월 이월금	875,265		
병원대여금 반환	11,000,000		
총 수입 합계	39,244,700	금월 잔액	514,14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1월 가입자 명단 (1명)

322. 류승희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옥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명구	6 김수영	7 설철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봉
11 박철홍	12 정동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은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차은숙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지현	24 박순화	25 임광래	26 한정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성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혜란	35 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혜	38 정용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영옥	44 최범택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철자	48 정한종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완	52 최범택	53 최유은	54 최애은	55 박창재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이재신	60 이희기
61 이원영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익숙	76 이주영	77 변현영	78 배경화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정은	83 신성관	84 정훈기	85 정희창	86 장예은	87 박효정	88 허명종	89 김미원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수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무 영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봉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정아	105 황현동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은진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향순	114 이종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은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성희	123 박유민	124 이한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지현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숙	134 김태연	135 박해숙	136 양수진	137 심재복	138 김희숙	139 오동주	140 이태종
141 김대비다	142 천지아	143 조혜숙	144 이방훈	145 박해정	146 민안나	147 이금영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영희
151 청명힐링	152 김희연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예은	156 임순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열기	165 이예숙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필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성	174 이원경	175 박정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든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지연	184 문지수	185 이다정	186 이든구	187 송희종	188 이하은	189 정윤호	190 김순애
191 인종복	192 이영화	193 유광현	194 이든구	195 이용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숙	199 윤대요	200 최경련
201 김호년	202 김혜원	203 장승아	204 황보순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백성운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영	214 황순찬	215 박미행	216 유민성	217 우짜이슈사	218 이은주	219 백성운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의선원재료	228 김예송	229 김수현	230 김수현
231 장관숙	232 김숙희	233 남원희	234 남지영	235 김창자	236 김진아	237 오준석	238 박선순	239 노은순	240 이성혜
240 최혜영	241 임계숙	242 이승재	243 안유홍	244 김선경	245 김선영	246 손태정	247 이은주	248 이안순	249 정혜실
250 한종석	251 한화숙	252 김애원	253 박정희	254 한경숙	255 이기열	256 정은영	257 이우주	258 이우경	259 최영훈
260 김미옥	261 김동수	262 조지영	263 이신	264 최영애	265 장승아	266 이현미	267 이주희	268 이은주	269 최혜진
270 손현이	271 송분희	272 윤용주	273 변영옥	274 최영자	275 김성곤	276 김동완	277 김주희	278 이기경	279 신현규
280 이현미	281 민유홍	282 이은주	283 민노열	284 이주영	285 김승정	286 홍부내	287 조병호	288 정영자	289 이유송
290 조아나	291 민현정	292 박용천	293 윤주동	294 장승아	295 조병호	296 김명희	297 홍순경	298 이성영	299 김무순
300 양호경	301 김주형	302 권외재	303 정영애	304 조아나	305 김옥경	306 CHINESE	307 박진관	308 공은경로사	309 권유송
310 방원	311 남기혁	312 김소현	313 윤종문	314 박재현	315 이하리	316 민요한	317 최홍석	318 정복숙	319 김사진
320 최봉관	321 이복순	322 류승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소나무 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1년 11월 씨앗헌금 후원 : 김형심 10,000 이하선 100,000 한종석 200,000
2021년 11월, 총 6명의 환우에게 3,384,15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환우들이 면역성이 약하여 코로나 차단을 위해 외부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는 계속 되었지만 외부의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지 2년이 가까워 옵니다.
중보 기도해야 하는 환우들 명단을 올려 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최봉*님(혜장암3기) - 면역력을 주셔서 항암주사 23회차(12월7일~9일) 잘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소전행 웨장암으로 절제수술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술 없이 완치될 수 있고, 다음 CT검사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2. 김상*님(혹색종 비강암) - 12월2일 결과, 감사하게도 종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항암 약은 7지만 남아 있으며 12월6일목에 새로운 임상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코암,오른쪽 눈(실명)사력이 많이 회복됨에 감사드리며, 현재 재발되고 있는턱,목,입마신및 코,눈주변의 임들이 깨끗하게 사멸되고 콧속에 이물질이 생기지 않고 항암 부작용도 깨끗이 없어지도록.
3. 권분*님(대장암4기) - 12월10일 시행한 피검사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후유증과 부작용 없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4. 이미*님(복막전이암) - 좌측허벅지 부종관련 혈관 CT 촬영 결과, 종양이 정맥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며, 더 이상 항암약이 없지만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측골반 통증도 호전되어 잘 걸을 수 있고, 항문 인접 직장의 통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항암항병중인 손발 저림과 피부 갈라지고 벗겨짐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5. 이희*님(유방암) - 오른쪽 두개골과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와 경추부분의 방사선치료를 11월8일~12월8일까지 총13회와 항암 주사제(CMF), 항암약 복용도 동시 시행중입니다. 방사선, 항암후유증(피곤, 면역력저하, 손발저림등) 잘 견디낼 수 있게 힘주시고, 반드시 고침 받을 수 있도록.
6. 최영*님(난소암) - 12월7일 CT 검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듣게 하시고 잘 관리하여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항암부작용으로 인한 통증들이 사라지고, 당뇨로 인한 갈증도 치유되도록.
7. 이안*님(폐암4기 재전이) - 12월22일 정기검사 예정입니다. 폐스캔, CT, MRI 엑스레이, 혈액검사후 29일에 좋은 검사 결과가 있기를, 표적치료제 약의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악을 꺾을 수 있도록.
8. 최영*님(유방전이암) - 12월10일 항암을 잘 받고 왔습니다. 항암부작용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실사가 있는데 부작용 없이 항암치료 잘 받게 하시고 전이나 재발 없게 하시고, 12월 10일에 기타 검사를 받았습니. 좋은 결과 있도록.
9. 양은*님(난소암) - 11월19일부터 방사선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일하셔서 완치시켜 주시길.
10. 강성*님(유방전이암) - 12월16~17일 항암치료 예정입니다. 치료시간을 통하여 육의 완전한 치료와 영의 온전하신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 허준*님(폐암전이) - 12월19일 MRI, CT 찍고 28일 결과를 보는데 결과가 좋아져서 같은 표적치료제를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최근 머리와 허리가 아픈데 빨리 치료 될 수 있도록.
12. 이약*님(위암) - 항암부작용으로 손 발저림과 가려움증, 잦은 배노감으로 불편한데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간수치 호중구수치 반혈수치 정상입니다. 당수치도 정상화 되게 해 주시고 몸도 붓지 않도록 면역력과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13. 김영*님(폐암) - 12월11일 머리MRI 검사가 있었고, 12월10일 항암치료도 했습니다. 부작용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14. 육춘*님(방광암) - 10월28일 각종검사와 11월4일 방광내시경 검사가 있었습니다. 남은 암세포와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고, 밤에 숙면을 못하는데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15. 박수*님(자궁경부암 재전이) - 현재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고, 5차 항암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부작용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방광기능 장애로 염증이 생기고, 반복되는 고열로 신장기능도 약화되었는데 고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6. 송은*님(위장관기질암) - 12월30일 복막과 간전이 CT검사, 12/14일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믿는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17. 김형*님(위암) - 12월9일, 항암을 했는데 면역력과 체력을 주시고, 항암중 후유증과 부작용 없게 하시며 재발, 전이 되지 않고 암세포만 완전히 사멸될 수 있도록.
18. 조적*님(위암) - 12월14일, 4차 항암 잘하고 왔습니다. 모든 항암과정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19. 나상*님(혜장암) - 신장암 수술후 암이 재발하여 웨장 간에 전이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암이 동면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동면상태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20. 허미*님(자궁경부암 림프절 전이) - 항암과 방사선 38회를 마친 후유증으로 소장, 방광이 자극되어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깊은 숙면을 통해 조직이 잘 회복되도록, 12월4일과 6일 CT와 MRI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깨끗이 잘 치료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 차듯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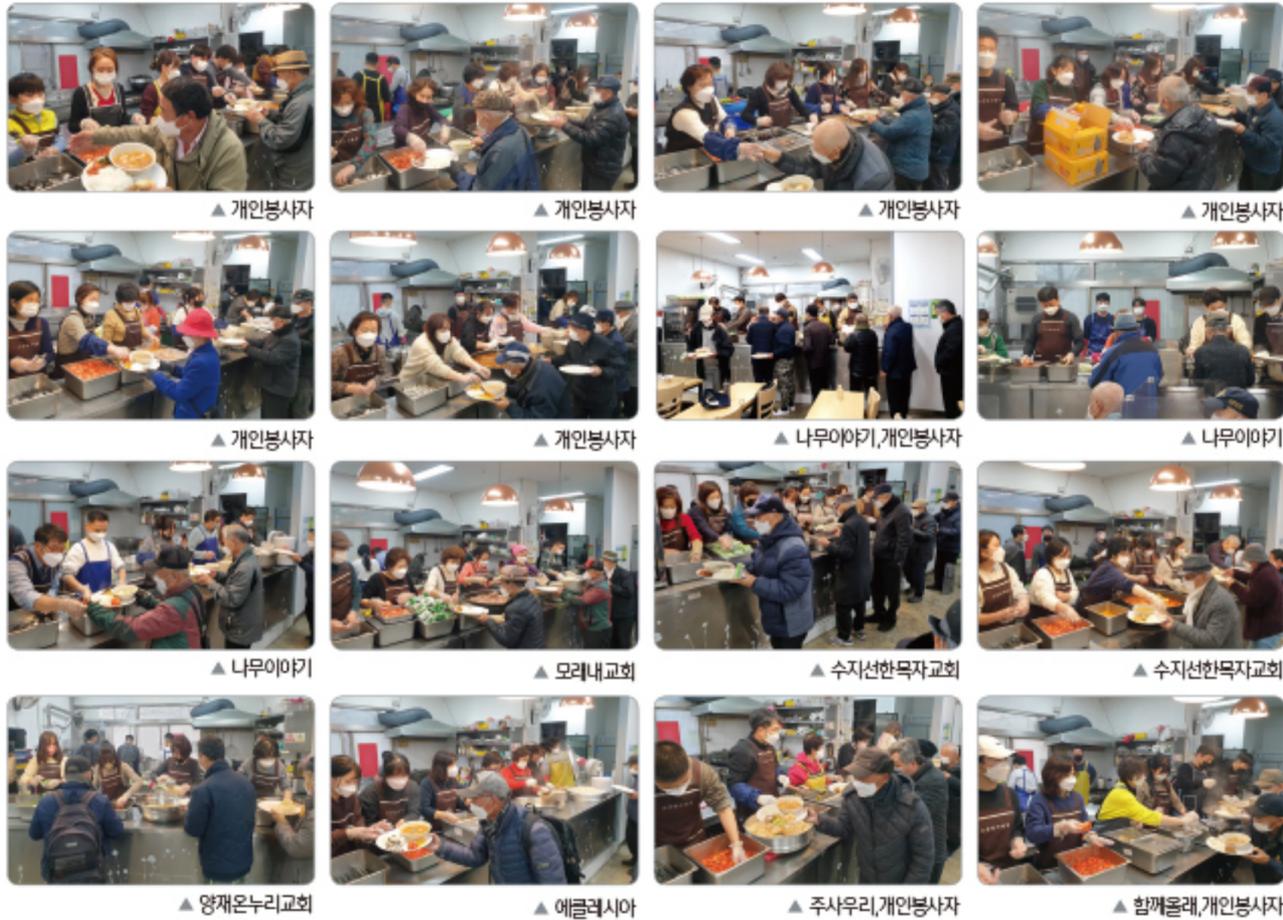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11월 노숙인들에게 나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지친 삶의 어려움속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해 한가지, 두가지 정성스럽게 만들고 다듬고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물품을 매일같이 나누어 주는 나눔 속에 소중한사람들 모든이들이 하나될 수 있어서 행복한 11월이었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장충단성결교회에서 보내주신 쌀, 사과, 굴, 무와 충만한교회에서 보내주신 쌀과 굴로 많은 분들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20일 (토요일) 14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7일 (토요일) 33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숙인들을 위하여 사과, 토마토, 배, 굴, 감...고급 과일을 헌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암환우인데 매주 화요일 요양병원에서 외출하여 싱싱한 과일을 구입하여 소중한사람들에 가지고 오십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노숙인들이 맛있게 과일을 잡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암에서 완치되어 급식 봉사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암에서 완치되어 노숙인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17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300명 이상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월에는 1일, 8일, 15일, 22일 나무 이야기, 2일 모래내교회 3일, 11일, 17일, 25일, 수지선한목자교회, 13일 에클레시아, 20일 함께올래, 27일 주사우리, 29일 양재온누리교회 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권경희, 고중덕, 고순미, 김수경, 김성주, 김수진, 김은유, 김현숙, 벤, 박현숙, 석동신, 신승규, 손수정, 서정국, 신하영, 윤재운, 이지은, 이은경, 이평은, 최금련, 정경화, 정희엘, 정병진, 강덕희, 강명석, 이정민, 고금순, 김연희, 김용수, 김도영, 김태희, 노정규, 변영미, 송기승, 오윤순, 이주희, 이한숙, 임맹자, 장종숙, 허청만, 한송희..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 목요일 김요엘, 화요일 김재정, 조진영 수요일 정기종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범주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남성 센터



▲ 결핵검진



▲ 식자재 업체 입찰



▲ 정화조 청소



▲ 코로나검사

센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1월 3일 중구청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11월 11일에서 12까지 생활인 독감예방주사 접종이 있었습니다. 모두 잘 참여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식자재업체 입찰 선정이 있었습니다. (주)미래푸드가 선정되었습니다.

11월 26일에는 생활인 결핵 검진과 코로나 검사가 있었습니다.

11월에 권오*님, 윤동*님, 박태*님이 만기 퇴소했으며, 황연*님, 김정*님, 이정*님이 새로이 입소하셨습니다.

센터 생활인들은 매일 오후 6시 QT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QT 출석 시상자는 김도*, 김상*, 김창*, 마성*, 서성*, 이동*, 이희*, 정길*, 최은* 님입니다.

상담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4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4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884회가 되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형진, 최우윤, 김정신, 김진수, 이열리, 최영자, 양은옥,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최영희, 이인순, 최봉관, 김상근, 윤주동, 강성림, 허춘규, 김영민, 이약선, 육춘기, 송은미, 박수정, 김형식, 조직상, 나상운, 허미옥, 경혜령님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기열, 박영려,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김영민,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우현,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박경미, 신현숙, 이용림, 최영애,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김진임, 장영희님, 김지윤님이 재발되지 않도록
7. 신형진님이 9차(2021년 8월18일)까지 맞은 스피라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앤드류 구명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아이티

갱단이 숨통을 조이고 있는 아이티 연료난과 식수난, 갱단의 연료 수송 봉쇄로 도미노 피해 포르투프랑스 일대의 40%를 갱단이 장악하고 몸값을 노린 납치나 약탈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갱단들은 주요 연료 터미널도 장악한 채 도로를 막고 연료 수송을 차단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도시가 마비되고, 병원에선 자체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도 이르렀습니다. 통신에도 차질이 생기고 먹는 물까지 부족해지는 등 연료난의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명의 선교사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며 풀어주지 않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수난이 심각해지자 유일한 급수인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귀동 마을에 현대식으로 초등학교와 교회를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동마을에 지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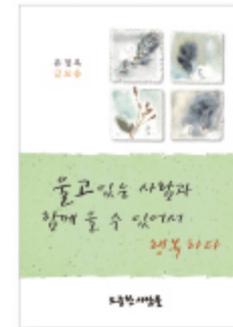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쉐갈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전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서 저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87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유정옥 사모의 신앙생활을 담은 에세이
고아가 된 어느 남매를 맡아 키운 이야기
생면부지의 암환자를 봉양한 이야기
먼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등 삶의 굽이마다 펼쳐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정가 10,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의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서울역 노숙인들 곁에서 17년간 함께 해온 유정옥 사모가 그곳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워할 때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정가 12,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세 번째 이야기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http://café.naver.com/orangecekpu>에서 육아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YES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9.7 /10.0
두 아이를 키우는 박선인 사모가 실제로 아이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동으로 풀어나가는 영롱한 이슬 같은 예쁜 이야기 글 모음이다.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박선인·정가 12,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네 번째 이야기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 사모의 우리아이를 위한 예쁜 글모음, 그 두번째 내 아이를 위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 우리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양육해 가는 세밀한 과정을 사랑의 마음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 이 책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자존감을 상실한 어른들에게도 사랑과 힘이 될 것 같은 선한 지침서와도 같은 사랑과 지혜가 담긴 글 모음이다.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말씀 통독, 정독 및 성경 공부용 신개념 성경 <형광펜 성경1, 2, 신약>

펴낸이<이성웅/이한나> 출판사<하늘참고>

(형광펜성경1)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형광펜성경2)가 역대상부터 말라기까지 출간되었습니다. 또한 (형광펜성경 신약)에 이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묶어놓은 (형광펜성경 신약2)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개역한글판"으로 출간됩니다.

형광펜 성경의 표시 방법은

각 장 별로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서 다르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2~3단어의 짧은 구절은 글자 색에 변화를, 4~8단어의 구절에는 같은 색의 밑줄을, 9단어 이상의 긴 구절에도 글자 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짧은 구절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시를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구절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형광펜 성경 신약]에서는 구약이나 해당 복음서 안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 복음서가 쓰인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 그 의미를 본문 옆에 기록하였으며, 무엇보다 헬리어 원문의 뜻을 찾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그림 혹은 지도를 찾아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형광펜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형광펜 성경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성경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형광펜성경 하늘참고를 검색하시면 동영상강의로 쉽게 성경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펜성경2 구매방법 *pdf로 구매하셔야합니다*

이번 (형광펜성경 신약2)는 pdf로 출간되었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이므로 구매안내를 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3333-13-9497222 (이성웅) * 가격 : 1만원을 입금해주시고 성명, 송금날짜, 송금시간을 2445matt@gmail.com으로 이메일 발송해주시면 확인후 보내신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티타임&바이블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

티타임&바이블은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 성경 모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작은 성경 카페 같은 모임이에요. 특히,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질문하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티타임&바이블에서 혼자 또는 함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티타임&바이블에 함께 모인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오셔서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다 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티타임&바이블에서는 티와 커피가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픈한 공간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일정 ※

출애굽기 (화 오후7:30/ 강남구청역 갯피플웨딩)
레위기 (금 오후7:0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다니엘 (주일 오전 9:3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직접주문(02-365-9106)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의 책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암환우 힐링 센터 의료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추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1년같은 하루하루가 삼백 예순 닷새를 달려오게 했습니다. 순간순간 힘겹다 고되다 했지만 지나온 날들은 나를 성장시킨 시간이니 마음에 안들더라도 너무 깊은 후회는 하지말기로 해요. 마지막 달력을 떼어내며 오늘까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새롭게 다가올 일년을 설렘으로 맞이합시다. 소중한사람들에게 1년 같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루 같은 1년이 되게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소중한사람들 사역에 함께 해 주시는 동역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1월에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도영 이한숙,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안현진 이영현, 이성웅 이한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구명신, 권노균, 김갑희, 김영선, 김정호, 김태희, 김현숙, 김화자, 김효성, 나은선, 노아, 동광프리즘, 무명, 문영숙, 박문희, 박순선, 박수현, 박혜수, 백다솔, 백용하, 변영미, 송희중, 신명순, 신형진, 신혜영, 양지혜, 유광현, 유영재, 유재학, 유정금, 유정옥, 윤석길, 윤혜영, 용자, 이선아, 이윤정, 이주열, 이주희, 이재은, 임나리, 임맹자, 장지호, 정미주, 정일권, 최지환, 최진욱, 허용희, 황정아, 홍부네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신 김도영 이한숙, 김용수 송연숙, 백용하 임맹자 백다솔 백주현, 이성웅 이한나 가족과 김정호, 김현숙, 박금용, 변영미, 유정옥, 이천우, 장종숙, 추연국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감사헌금을 보내주신 이성웅, 이한나 가족, 박현미, 주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헌금을 보내주신 (사)온누리약국 복지회, 리얼티코리아부동산, (기갑)수지선한목자 교회, (기갑)안양감리교회, (예장)영락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목적헌금을 보내주신(주)남촌레저개발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심히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인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법적인 몰무에 잡혀 있는 분들이 승리하여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프린라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우님

최영자,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양은옥, 최영희, 이인순, 최봉관, 권외자, 김진임, 김상근, 주재희, 윤주동, 강성립, 허춘규, 김영민, 이약선, 육춘기, 김지운, 송은미, 박수정, 김호상, 정유나님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영자,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양은옥, 윤채원, 최영희, 이인순, 최봉관, 권유송, 김미향, 김상근, 주재희, 윤주동, 강성립, 김무순, 황수옥, 곡진관, 허춘규, 김영민, 이약선, 육춘기, 김지운, 송은미, 박수정, 김하양, 조직상, 나상운님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혜숙, 김민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김영민,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우현,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박경미, 신현숙, 이용립, 최영애,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김우현, 윤채원, 김진임, 장영희, 김지운님이 재발되지 않고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7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옥 드림

11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재고
11/1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2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4	이성혜	사과	10박스	11/5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10박스	0
11/4	PN노아	돼지고기	100kg	11/5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34kg	66kg
				11/6,7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433kg	0
11/4	PN노아	소고기	20kg	11/8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0kg	0
11/4	충만한교회	굴	7박스	11/6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7박스	0
11/4	충만한교회	쌀10kg	7포	11/5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4포	3
				11/6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3포	0
11/4	충만한교회	쌀20kg	8포	11/7,8,9,10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42포	0
11/5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6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8	푸드뱅크	빵, 만두	4박스, 1박스	11/9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4박스, 1박스	0
11/9	목3동롯데마트	바나나	2박스	11/9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2박스	0
11/9	이기열, 장은영	패딩	152벌	11/14	방한옷 나눔	저 리노속인	152벌	0
11/10	이성혜	굴	26박스	11/11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26박스	0
11/10	여의도순복음교회집사님	쌀20kg	2포	11/11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포	0
11/10	소중한사람들 할랑샘터관우	배	2박스	11/10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박스	0
11/11	PN노아	돼지고기	100kg	11/12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34kg	66kg
				11/13,14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433kg	0
11/11	PN노아	소고기	20kg	11/15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0kg	0
11/12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13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15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16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16	이성혜	단감	10박스	11/17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10박스	0
11/18	PN노아	돼지고기	100kg	11/19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34kg	66kg
				11/20,21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433kg	0
11/18	PN노아	소고기	20kg	11/22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0kg	0
11/18	이든힐	쌀20kg	5포	11/19,20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42포	1
				11/21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1포	0
11/19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20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21	강촌단교회	쌀20kg	6포	11/22,23,24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42포	0
11/21	강촌단교회	굴, 사과 240kg	10박스	11/22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각 10박스	0
11/21	강촌단교회	무	3자루	11/29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3자루	0
11/22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23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23	이성혜	배	12박스	11/24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12박스	0
11/25	PN노아	돼지고기	100kg	11/26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34kg	66kg
				11/27,28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433kg	0
11/25	PN노아	소고기	20kg	11/29	무료급식	저 리노속인	20kg	0
11/26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27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29	푸드뱅크	빵, 만두	5박스, 1박스	11/30	간식나눔	저 리노속인	5박스, 1박스	0
11/30	이성혜	감귤	26박스	12/1	과일나눔	저 리노속인	26박스	0



2021년 11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 십일조 헌금 ●

강덕희(120,000)	구명신(200,000)	권노균(200,000)	김갑희(620,000)	김도영,이한숙(320,000)	김영선(100,000)
김영진,손미나(1,500,000)	김용수,송연숙(300,000)	김정호(150,000)	김태희(101,000)	김현숙A(1,000,000)	김화재(200,000)
김효성(80,000)	나은선(300,000)	노아(1,000,000)	동광프리즘(1,000,000)	무명(100,000)	문영숙(200,000)
박문희(110,000)	박선순(200,000)	박수현(250,000)	박혜수(1,000,000)	백다솔(260,000)	백용해(230,000)
변영미(400,000)	송희종(500,000)	신명순(200,000)	신형진(450,000)	신혜영(300,000)	안현진,이영현(400,000)
양지혜(100,000)	유광현(450,000)	유영재(350,000)	유재혁(740,000)	유정금(440,000)	유정옥(200,000)
윤석길(2,000,000)	윤해영(200,000)	윤자(220,000)	이선애(200,000)	이성웅,이한나(280,000)	이윤정(500,000)
이주영(300,000)	이주희(360,000)	이채은(230,000)	임나라(600,000)	임병자(260,000)	장지호(50,000)
정미주(241,750)	정일권(250,000)	최지현(3,000,000)	최진욱(500,000)	허용희(650,000)	황정애(300,000)
홍부내(500,000)					

● 특별목적 헌금 ●

남촌리저개발(주)(140,000,000)

● 추수감사 헌금 ●

김도영,이한숙(300,000) 김용수,송연숙(300,000) 김정호(150,000) 김현숙(50,000) 박금용(50,000) 백용해,임병자,백다솔,백주현(700,000) 변영미(100,000) 유정옥(500,000) 이성웅,이한나(250,000) 이천우(10,000) 정종숙(50,000) 추연국(50,000)

● 개인 감사헌금 ●

강덕희(20,000)	강성희(100,000)	강윤옥(10,000)	곽정희(30,000)	권정연(2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미(150,000)	김도영(30,000)	김동민(10,000)	김미덕(30,000)	김미선(50,000)
김미영(50,000)	김미정(20,000)	김민석(10,000)	김선애(100,000)	김성희(30,000)	김수미(80,000)
김영선(10,000)	김영진,손미나(100,000)	김진동(50,000)	김정호(40,000)	김정훈(10,000)	김종례(30,000)
김주희(100,000)	김채원(100,000)	김태세(40,000)	김태희(4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서(20,000)	김현숙B(40,000)	김현숙C(100,000)	김혜영(10,000)	김희정(50,000)	나선미(100,000)
나종숙(50,000)	남지영(10,000)	남혜원(10,000)	무명(10,000)	무명(30,000)	문병숙(30,000)
문은정(50,000)	문화선(30,000)	박동준(10,000)	박영옥(10,000)	박상훈(100,000)	박선주(10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20,000)	박영란(10,000)	박정애(30,000)	박정환(20,000)	박현미(300,000)
배희영(10,000)	백다솔(10,000)	백용해,임병자(80,000)	백주현(10,000)	변경자(20,000)	변영미(150,000)
석동신(30,000)	성명숙(50,000)	성준호,정미혜(100,000)	신양수(20,000)	신외숙(30,000)	심요엘(10,000)
안용희(20,000)	안형옥(100,000)	양복길(13,000)	양지혜(70,000)	오경남(20,000)	원영옥(100,000)
유영안(20,000)	유정옥(10,000)	윤병준(10,000)	윤복남(10,000)	윤석종(20,000)	윤정인(3,000)
은혜(30,000)	이강혁,이강현(100,000)	이경식(10,000)	이나애(15,000)	이병주(10,000)	이보영(50,000)
이상희(20,000)	이상훈(10,000)	이상훈,남경희(50,000)	이성웅,이한나(40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용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경(100,000)	이윤희(10,000)
이은규(30,000)	이은숙(100,000)	이재성(50,000)	이재영(100,000)	이정대(120,000)	이정미(100,000)
이정선(100,000)	이정호(50,000)	이지은(10,000)	이춘(100,000)	이태희(31,000)	이한나(50,000)
이향숙(10,000)	이현경(30,000)	이황희(31,000)	임윤영(190,000)	장광욱,장자민(50,000)	장관숙(100,000)
장순복(30,000)	전정례(37,000)	정영애(20,000)	정윤(30,000)	정주연(50,000)	정형필(150,000)
정혜영(50,000)	조영미(30,000)	조진영(30,000)	최성은(10,000)	최진복(20,000)	최진재(100,000)
추연국(10,000)	한경숙(10,000)	한송희(100,000)	한정성(50,000)	한현희(50,000)	허명종(50,000)
홍금숙(10,000)	홍복실(100,000)				

● 교회 감사헌금 ●

(기감남산교회총여성교회(100,000) (기감별업교회(100,000) (기감선재중앙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수자선한목자교회(4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감식도성결교회(50,000) (기감아현성결교회(100,000)
 (기감장흥단성결교회(100,000) (예장)문화교회(10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대한예수교세마(50,000)
 베이직교회(1,000,000) 사랑하는우리교회(100,000) 성호교회(50,000) 예봉교회(50,000)

● 기관 감사헌금 ●

(주)이스타파트너스(300,000) 리얼티코리아부동산(3,000,000) 사랑의센타(50,000) 엔씨마과과학수학학원(100,000)
주사우리(150,000) ㈜아브라함(100,000) ㈜커피티크(100,000)

● 미얀마고아 선교헌금 ●

(주)이스타파트너스(40,000) 광상미(4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40,000) 이성자(40,000)
이성자(40,000) 이현미(40,000) 이현희(10,000) 이해란(40,000) 정영애(40,000) 조갑동(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 중국고아 선교헌금 ●

박선주(40,000) 윤혜경(40,000) 이해란(40,000) 조춘식(40,000)

● 멕시코고아 선교헌금 ●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해란(40,000) 전하은(40,000)

● 북한고아 선교헌금 ●

(주)이스타파트너스(4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광훈, 김미영(50,000)
김영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영(5,000) 박소호(50,000) 사랑의교회여제자회(50,000)
서재윤(40,000) 석영란(20,000) 안성미(3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이경희(30,000)
이복재(50,000) 이순주(20,000) 이은경(30,000) 이현희(10,000) 이해란(40,000) 장인영(40,000)
정미주(40,000) 정보석(1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 북한선교 헌금 ●

김지혜(30,000) 신경자(100,000) 유민아(5,000) 이은혜(50,000) 이해란(50,000) 장승아(50,000)
장인영(50,000) 정유진(30,000) 한경주(10,000) 한승주(10,000) 한시은(10,000)

● 아이티고아 선교헌금 ●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Pacific JNU Corp(40,000) 갓파블웨딩(40,000) 갓파블웨딩(40,000) 강병춘(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 손행(40,000) 김명호, 서은혜(40,000) 김상진, 손행(40,000)
김재민(40,000) 김화련(30,000) 노윤정(40,000) 박선인(40,000) 박선주(40,000) 박준영(40,000)
백정선(40,000) 새산성교회(40,000) 손향(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안서영(40,000)
우경은(40,000) 윤혜경(40,000) 이재혁(40,000) 이재호(40,000) 이찬애(40,000) 이해란(40,000)
장요셉, 손행(40,000) 정계순(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2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종교사상(100,000)

● 아이티 선교헌금 ●

김수천, 이준재(100,000) 김재정(40,000) 무명(300,000) 박서준(800,000) 박영미(35,000)
박종래, 최임선(20,000) 박혜진(5,000) 신혜영(300,000) 우경은(20,000) 이정희(30,000)
임영신(4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한종석(200,000)

● 쌀헌금 ●

이강혁(60,000)



㈜이스타파트너스(50,000) ㈜젤나(50,000) ㈜창세에스엔티(50,000) 갓파블웨딩(50,000) 강도숙(10,000) 강명미(10,000)
강미정(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성애(5,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매(10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전혁(10,000) 강현매(20,000) 강화란(10,000) 계영산업(50,000) 계용돈(30,000)
고건희(10,000) 고남균(10,000) 고명숙(30,000) 고명희(1,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혜림(5,000) 광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민정(30,000) 권병훈(30,000) 권정아(10,000) 권태준(10,000) 권혁천(10,000) 권희규(30,000)
길벗여행사(100,000) 길상임(10,000) 김경래(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고은(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쁨(10,000) 김기열(3,000) 김대원(10,000) 김통관(30,000) 김통균(50,000) 김통만(50,000) 김통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숙(10,000) 김명순(1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라(10,000) 김미숙(10,000) 김미희(10,000)
김민경(30,000) 김베드로(10,000) 김보연(30,000) 김복재(10,000) 김부녀(30,000) 김선영(100,000) 김선미(1,000) 김선애(10,000)
김선애(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화(10,000) 김성란(20,000) 김성만(20,000) 김성주(100,000) 김성해(5,000)
김성호(10,000) 김소라(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진(10,000)
김수현(50,000) 김수현(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10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순애(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생(5,000) 김영성(5,000) 김영숙(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연(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래(10,000) 김옥경(2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정(2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은희(5,000) 김의환(5,000) 김인주(50,000) 김일행(20,000) 김재홍(30,000)
김재정(50,000) 김정기(20,000) 김정순(10,000) 김정희(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주애(20,000) 김지아(1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환(50,000) 김태조(10,000) 김태환(5,000) 김한내(5,000)
김형은(10,000) 김향숙(10,000) 김향순(5,000) 김현매(10,000) 김현옥(100,000) 김현자(30,000) 김현주(10,000) 김현희(10,000)
김혜련(20,000) 김혜련(5,000) 김혜원(30,000) 김호년(30,000) 김호성(10,000) 김효정(20,000) 김희숙(30,000) 나영매(20,000)
나주영(10,000) 나지용(5,000) 남기국(10,000) 남혜경(20,000) 노순경(100,000) 노은실(1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라미영(30,000) 로고스타디(20,000) 류명순(5,000) 명은재(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희(10,000)
박경희(10,000) 박관태(30,000) 박다은(5,000) 박명희(5,000) 박미경(10,000) 박민선(10,000) 박민숙(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수(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은(20,000) 박성영(3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영배(50,000) 박영수(10,000) 박영자(20,000) 박인권(2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진철(10,000) 박찬국(3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현숙(100,000)
박현미(20,000) 박현미(30,000) 박현숙(5,000) 박현주(10,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창미(5,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동선(10,000)
서상숙(20,000) 서울제일침례교회(100,000) 서윤정(10,000) 서정국(50,000) 서지연(10,000) 서혜림(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남시청신우회(30,000) 성준호(10,000) 성찬영(5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애(10,000) 손현경(10,000) 송경자(30,000) 송규화(100,000) 송상신(10,000)
송재란(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10,000) 송지영(10,000) 신순자(100,000) 신승우(50,000) 신영주(10,000) 신용순(10,000)
신정용(20,000) 신현숙(10,000) 신희진(20,000) 심사랑(1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10,000) 안유진(20,000) 안주백(10,000) 안호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훈(5,000) 양의문교회(30,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예안(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김포)예수사랑교회(30,000) 오덕순(10,000) 오재원(10,000) 오점관(10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상해(20,000) 우홍균(10,000) 원상희(5,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인규(20,000) 유정모(20,000) 유준서(5,000) 유지영(30,000) 유지영(5,000)
유지영(10,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애경(10,000) 윤예은(10,000) 윤원(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은미선(100,000) 이강선(1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희(10,000) 이공아(100,000) 이광옥(2,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문정(10,000) 이미경(10,000) 이마옥(30,000) 이방환(50,000) 이병기(10,000)

(2021년 11월 01일 ~ 11월 30일까지)

이보철(10,000)	이복자(50,000)	이선미(20,000)	이선영(50,000)	이선호(10,000)	이성순(10,000)	이성재(20,000)	이수민(10,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승은(30,000)	이승재(10,000)	이애희(10,000)	이연정(50,000)
이영록(3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영숙(200,000)	이영희(20,000)	이예원(10,000)	이옥경(5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원우(3,000)	이윤미(30,000)	이윤희(10,000)	이은숙(10,000)	이은혜(50,000)	이의화(10,000)	이인용(20,000)
이장일(10,000)	이재은(20,000)	이재행(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희(10,000)	이종수(40,000)	이종훈(50,000)
이주아(20,000)	이주희(50,000)	이준희(110,000)	이지숙(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희(50,000)	이창식(2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희(20,000)	이현주(20,000)	이현희(10,000)	이혜경(10,000)	이혜성(5,000)	이홍중(3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주(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행(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5,000)	임수연(10,000)	임신희(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희(10,000)	임진옥(30,000)	임준옥(20,000)
임혜순(30,000)	임화경(30,000)	장문삼(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용훈(100,000)	장윤정(1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금자(30,000)	전용미(10,000)
전재국(10,000)	정경아(5,000)	정경희(30,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덕재(40,000)	정두례(10,000)	정두섭(10,000)
정문희(1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민웅, 김유미(100,000)	정성분(10,000)	정소영(20,000)	정순남(5,000)	
정애래(20,000)	정영희(30,000)	정유정(20,000)	정윤경(10,000)	정은채(5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재호(40,000)
정재희(30,000)	정진숙(10,000)	정해재(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천(5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광희(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미원(60,000)	조민희(30,000)	조성림(10,000)	조성환(1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	조은영(20,000)	조은영(10,000)	조준희(5,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찬양교회(50,000)	지영재(5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참소망연합의원(5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최경선(10,000)	최규영(10,000)	최금련(30,000)
최민영(3,000)	최민홍(3,000)	최병수(30,000)	최상해(10,000)	최성근(50,000)	최수경(4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유리(10,000)	최윤규(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준삼(10,000)	최준희(30,000)	최해나(4,000)	최현미(1,000)	최현숙(20,000)	최혜정(100,000)	추윤희(40,000)
하예진(30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기윤, 유영선(20,000)	한동기(50,000)	한미경(30,000)	한미운(30,000)	
한정선(40,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한진희(20,000)	한혜민(2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영수(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인애(30,000)	현정은(10,000)	홍순경(20,000)	홍신숙(100,000)	홍영희(5,000)	홍유미(5,000)
홍재필(20,000)	홍정희(20,000)	홍재영(10,000)	홍주연(20,000)	홍진아(10,000)	홍현미(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황희찬(20,000)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지난 한해도 소중한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손길 덕분에 따스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전화 또는 메일로 알려주시면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사정에 따라 당일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날짜보다 3~4일 여유있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2022년에도 많은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02-365-9106 / street9106@naver.com

소중한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우리은행 1005-902-66270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R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체크로 보내실 경우 JUNG OK YOO 31 VIRGIL RD NORWOOD NJ 07648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를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미 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 국
북 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마태복음 1:21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한 해 베풀어 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성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보내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뒤돌아 봅니다.
모든 일들이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에도 많은 사랑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